

남해대교 남해각, 관광객에게 인기

허귀용 기자 | 승인 2023.08.23

올해 상반기 남해각 방문객 수 1만 9918명
지난해 같은 기간 비교 160% 증가

남해군 남해대교 인근에 있는 관광시설인 남해각 관광플랫폼이 관광객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남해관광문화재단(이하 재단)은 올해 1~7월 남해각 방문객 수가 1만 991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남해대교 인근에 있는 남해각 내부 모습./남해군

재단은 지난해 남해군으로부터 남해각을 위탁받아 운영 중이다. 재단은 관광객들이 관광 정보와 다양한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남해각을 남해관광의 오프라인 거점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지역 관광사업체의 홍보를 지원하는 등 지역민이 함께 공간을 공유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재단은 지역 영세 관광사업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지난 3월 ‘남해 관광 거버넌스 데이’를 열었고 남해 관광 구독서비스와 연계해 53개 업체와 제휴를 맺어 20여 개 군내 업체가 관광기념품을 전시·판매하면서 남해의 관광매력을 알리고 있다.

남해관광문화재단 조영호 본부장은 “남해각을 단순한 도시재생공간이 아닌 남해관광을 매력적으로 알릴 오프라인 거점공간으로 구축하고자 많이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관광 거버넌스와 힘을 합쳐 다양한 콘텐츠를 지속 가능하게끔 운영해 나갈 것이며 하반기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받은 사랑을 지역민과 관광객들에게 되돌려드리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귀용 기자

저작권자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허귀용 기자